

## 광주일보 3·1절 마라톤 D-15

## “우리도 함께 뛰다”



목포대학교 교직원들로 구성된 목포대 마라톤 동호회와 학생 마라톤 동아리 '초승달' 회원 150여명이 광주일보 3·1절 마라톤 대회에서의 합찬 레이스를 다짐하고 있다. /목포=나명주 기자 namj@kwangju.co.kr

# 의과대 설립 교직원·학생 한마음 질주

### ■ 목포대 마라톤 동호회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은 전남의 희망입니다. 반드시 설립해 지역 보건 의료 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제46회 광주일보 3·1절 마라톤대회에 출전하는 목포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 150여명은 목포대학교 20년 숙원사업인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열심히 달리겠다고 다짐했다.

### 전남 의료서비스 향상 나서

학내에서 참여하는 단체는 2곳. 교직원들로 이뤄진 목포대 마라톤 동호회와 학생 마라톤동아리 '초승달'(초승피드로 승리

를 향해 달린다)이 이번 대회에 출사표를 던졌다.

달리기를 통해 건강을 증진하고 대외적으로 학교홍보도 꾀어지는 목적으로 출발한 목포대 마라톤 동호회(회장 김영철 교수)는 올해 첫 단체대회로 광주일보 3·1절 마라톤대회에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보여준다는 결의다.

마라톤 동호회는 지난 2009년 7월 창립, 현재 50여명의 회원들이 매주 목요일 오후 학교 대운동장에서 훈련을 하고 휴일에는 목포 부주산과 영산강 하구둑을 지나 나뭇도를 도는 등 대회를 앞두고 팀워크를 다져오고 있다.

특히 이 동호회에서 빠질 수 없는 인물은 교석규 목포대 총장이다. 마라톤 마니아인 그는 매 대회마다 교직원들과 함께

참여해 기량을 겨루고 지역사회와의 교류의 장에도 함께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목포대 마라톤 동호회는 약학대 설립 촉하와 의과대학 유치, 입시홍보 등을 병행,

### 교석규총장 지역민 걸로로

마라톤을 통해 목포대 홍보전도사의 임무를 담당했으며 지난해 열린 보성 대회에서는 단체 2위를 차지하는 등 빠르게 성장 중이다.

목포대학교는 1990년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을 정부에 건의해 왔다. 지난 2007년 12월 2일 이명박 대통령이 “다도해 지역 등의 의료·보건

기반 조성을 위해 목포대에 의과대학 개설 및 대학병원 건립”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힘 입어 목포대는 전남과 함께 지역민들의 숙원을 이뤄내기 위해 이번 마라톤 대회를 택했다.

지난 6월 창립한 학생마라톤동아리 '초승달'회원 50여명도 3·1절 마라톤을 참가해 목포대 의과대학 유치 홍보와 더불어 동아리 회원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최성웅(금융보험학과 4년) 회장은 “아직 많은 수의 회원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회에 참여할 회원들의 열의가 대단하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지역 마라톤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佛무대 박주영 'PK 골맛'

### 시즌 7호골... AS모나코 1부리그 강등권 탈출 시도

프랑스 프로축구 AS모나코에서 뛰는 박주영(26)이 FC로리앙과 홈 경기에서 시즌 7호 골을 터뜨렸다.

AS모나코는 13일(이하 한국시간) 모나코 루이2세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0-2011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1 23라운드 FC로리앙과 홈 경기에서 3-1로 이겼다. 왼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박주영은 2-1로 앞서던 경기 종료 직전 팀 동료 장 자크 고소가 얻어낸 페널티킥을 침착하게 차 넣으며 시즌 7호 골을 터뜨렸다.

지난해 12월 23일 FC소쇼와 경기에서 시즌 6호 골을 터뜨린 이후 첫 득점이다. 박주영은 바로 그 경기에서 골을 넣고 세리머니

를 펼치다 무릎을 다쳐 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아시안컵에도 출전하지 못했다.

AS모나코는 전반 3분 이고르 톨로의 선제골로 앞서 갔으나 22분 FC로리앙의 케빈 가메이로에게 동점 골을 내줘 전반을 1-1로 마쳤다.

그러나 후반 11분 토마스 망가니의 결승골로 다시 앞서나간 뒤 경기가 끝나기 직전 박주영의 페널티킥으로 승부에 쐬기를 박았다. 4승12무7패가 된 AS모나코는 정조국(27)이 속한 AJ오세르(4승13무6패)에 승점 1점이 뒤진 18위를 지켰다. 프랑스 리그1은 18위부터 20위까지 3개 팀이 다음 시즌 2부 리그로 떨어진다. /연합뉴스



## 獨무대 구자철 '성공 데뷔'

### 후반 교체 투입... 원발 강슛 등 26분 인상적 활약

2011 아시안컵에서 맹활약을 펼쳤던 구자철(22·볼프스부르크)이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데뷔전을 무난하게 치렀다.

구자철은 13일(한국시간) 오전 독일 볼프스부르크 폴크스바겐 아레나에서 열린 2010-2011 분데스리가 22라운드 함부르크 SV와 홈경기에서 0-1로 끌려가던 후반 19분 아쉬운 데야가와 교체돼 그라운드를 밟았다.

아시안컵을 치르던데다 입단 후 지난 10일 터키 원정 평가전에 출전하느라 팀 동료들과 제대로 호흡을 맞춰볼 기회조차 없었다. 하지만 투입되자마자 적극적인 몸싸움으로 함부르크의 측면 공격을 막아내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과시했다.

후반 29분에는 정면으로 침투해 공격 기회를 엿봤고 32분에는 상대 수비수가 걸어낸 공을 아크 정면 외곽에서 원발로 과감한 슈팅으로 연결해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아깝게 골대 오른쪽으로 살짝 빗겨나지만

이날 볼프스부르크가 시도한 공격 중에서도 가장 시원스러운 슈팅 중 하나로 꼽힐만했다.

구자철은 후반 44분 증원에서 왼쪽 측면 전방의 음보카니에게 긴 패스로 정확하게 공을 이어주는 등 수차례 날카로운 패스를 배달하며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다. 하지만 팀은 전반에 내준 페널티킥 선제공격을 만회하지 못하고 0-1로 패했다. /연합뉴스

### 차두리 부상 '시즌 아웃'

축구 국가대표팀 주전 수비수 차두리(31·셀틱)가 발목 인대 부상으로 남은 시즌 출전이 어렵게 됐다.

차두리 SBS 축구 해설위원은 12일 밤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박)지성이야 오래 쉬어야 한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두리는 더 오래 쉬어야 합니다”라며 아들 차두리의 부상 소식을 전했다. /연합뉴스

## 청야니, 신지애 제치고 세계랭킹 1위

청야니(22·대만)가 여자골프 세계 랭킹 1위로 올라섰다. 청야니는 13일 호주 골드코스트의 로열과 인스 리조트 골프장(파72)에서 열린 유럽여자프로골프투어(LET) ANZ 여자마스터스 골프대회(총상금 37만5000유로)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4언더파 68타를 쳐 최종합계 24언더파 264타를 기록해 우승했다. 지난주 역시 호주에서 열린 호주여자오픈에서도 우승했던 청야니는 2주 연속 우승컵을 차지하며 세계 1위였던 신지애(23·미라에셋)를 제치고 '골프 여제(女帝)'로 등극했다.

## 호주오픈 이어 마스터스 우승 한국계 세실리아 조 공동 5위

이로써 청야니는 2006년 2월 신설원 여자골프 세계 랭킹에서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 로레나 오초아(멕시코), 신지애, 미야자토 아이(일본), 크리스티 커(미국)에 이어 6번째로 1위 자리에 오른 선수가 됐다. 신지애는 지난해 11월1일자 순위에서 커

를 밀어내고 1위에 오른 뒤 최근까지 15주간 1위 자리를 지켜왔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니키 캄벨(호주)과 스테이시 루이스(미국)가 20언더파 268타로 공동 2위에 올랐고 한국계 아마추어 선수인 세실리아 조(뉴질랜드)가 17언더파 271타, 공동 5위로 대회를 마쳤다.

지은희(25·PANCO)가 16언더파 272타를 기록해 김초롱(27), 랩 등과 함께 공동 9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녀가발

## 가발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 검색

## 초슬림!!

스킬과 망이 초극대화하여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며 이질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최상품을 최저가로 최고의 만족을 드립니다. **가격 파괴 50만원**

귀하의 품위와 인격을 높여주는 영원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화상 두피함몰등 가발의 모든것 해결함  
 타사 제품도 신기술로 보완시술 가능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기든상가 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www.oknwood.com

편백나무는 무병장수의 나무입니다. 편백나무는 자연이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베게(편백나무씨앗+결명자씨앗)  
 ▲베게(편백나무씨앗+결명자씨앗)  
 ▲편백나무베게  
 ▲편백나무베게

목조주택 & 리모델링 전문업체  
 친환경 제품  
 편백나무 인테리어 시공 전시장 2층  
 각종 내장재  
 편백가구 전시장 4층

판매품목: 창농·5단서랍장·수납공간·불박이장·축욕기·독서대·책상 Set(의자·책꽂이)·침대·샬롱·편백베게·베게(편백씨앗+결명자씨앗)·편백가습기 수액

편백나무 인테리어 상담 및 편백주문제작 | 판매 및 창업문의  
**전국·전남·북·시·군 대리점 모집** | 010-3609-4321

편백나무가구 전문업체  
**광남중합목재건축재상사주**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동 634-26  
 TEL: 062) 652-2935, 2223 FAX: 062) 651-5141

협력사 | 우던페이퍼몰 | 태원목재 호남총판 | KCC석고보드총판 | 라파즈 석고보드 총판 | KCC 강화마루 | 동화마루 대리점 | 레도피아 합성목재 호남총판